



**‘부처님 오신날’ 앞두고 연등 달기**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 여 앞둔 1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경내에 오색의 연등이 설치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6분 / 해질 19시 01분 / 달출 15시 16분 / 달몰 03시 34분

#### 미세먼지 '보통'

맑은 가운데 주말에는 흐리고 비 오겠다.

광주	맑음	10/23°C
목포	맑음	9/19°C
여수	맑음	11/18°C
나주	맑음	7/22°C
완도	맑음	11/19°C
구례	맑음	7/22°C
강진	맑음	9/20°C
해남	맑음	9/20°C
장흥	맑음	9/20°C
순천	맑음	10/21°C
영광	맑음	8/20°C
진도	맑음	9/20°C
전주	구름 많음	9/22°C
군산	구름 많음	7/20°C
남원	구름 많음	7/22°C
혁신도	맑음	9/14°C

시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1	13/17	9/22	10/23	10/24	11/20

## '2014 장애인·청소년 우리지역 명산 체험' 가보니

### “함께 걸으며 얘기하고 소통하니 오래 전 알고 지낸 친구 같아요”

**광주일보·산림청·(사)광주학교 주최...무등산 탐방**

“걸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고 느꼈는데 함께 걸으면서 얘기하고 소통 해보니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아요.”

10일, 안전한 봄기운이 감도는 북구 금곡동 무등산 자락에 은혜 학교와 신광중학교 학생 3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의 첫 번째 만남이자 '소풍'이다.

광주일보와 산림청, (사)광주학교와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주최한 '2014 장애인·청소년 우리지역 명산 체험'에 참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은 무등산을 오르며 서로의 서먹함에 대한 '벽'을 깨더니 어느새 '친구'가 됐다.

처음에는 서로를 낯설어 했지만 은혜학교 학생 한 명과 신광중학교 학생 2명이 조를 지어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급속 화해에 이르렀다. 손짓, 몸짓으로 하는 대화였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들은 소통을 통해 서로 웃을 짓기도 하고, 휠체어를 끌어주고 부축해가며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한걸음 한걸음씩 무등산을 올랐다.

무등산을 처음 올라본다는 한혜진(여·16·은혜학교 중학 2년)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며 감격했다. 한 양은 “우리 같은 장애인은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라며 “친구 덕분에 꽃도 보고, 바람도 쉴 수 있어 고맙고 행복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신광중 1학년 유현승(14)군은 “나와 다르긴 해도 서로 말을 하며 산을 오르다 보니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지레 겁먹었던 게 부끄럽다”며 함께 한 김재훈(14·은혜학교 중학 1년)군을 바라봤다. 김군은 “현승이 덕분에 혼자서는 못 올 곳도 올라갈 수 있었지 않느냐”며 유군의 손을 맞잡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안원근(16·은혜학교 중학 2년)은 “나와 다르긴 해도 서로 말을 하며 산을 오르다 보니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지레 겁먹었던 게 부끄럽다”며 함께 한 김재훈(14·은혜학교 중학 1년)군을 바라봤다. 김군은 “현승이 덕분에 혼자서는 못 올 곳도 올라갈 수 있었지 않느냐”며 유군의 손을 맞잡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충효동 생태문화공원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펼쳐진 문화제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들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행사가 끝날 즈음, 학생들은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를 나누면서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

유혜진(32) 신광중 교사는 “다른 걸로만 보고 학생들이 경계를 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던 어찌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개만 보이던 학생들이 좀 더 자란 것 같아 기뻐했다”며 뿌듯해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수능 한국사 쉽게... 일정 수준 모두 1등급

### 2017 출제방향 공개

현재 고교 1학년부부터 치르는 대학 수험능력시험 필수 한국사 과목은 모든 문항이 현행 수능 시험의 가장 쉬운 문항 수준으로 출제된다. 전체를 9 등급으로 나눈 절대평가가 도입되며, EBS 교재와의 연계 비율도 유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시험의 출제방향과 10가지 문항유형을 10일 공개했다.

한국사 시험은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전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쉽게 출제할 예정이다.

또 8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어떤 교과서도 공부하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항유형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알기 ▲역사에서 중요한 용어나 개념 이해하기 ▲역사적 사건의 흐름 파악하기 ▲역사적 상황 인식하기 ▲역사적 시대 상황 비교하기 ▲역사 탐구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탐구 활동 수행하기 ▲역사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 분석하기 ▲자료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 추론하기 ▲역사 자료를 토대로 개연성 있는 상황 상상을 하기 ▲역사 속에 나타난 주장이나 행위의 적절성 판단하기 등이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교육청, 불필요한 교육규제 '손질'

### 추진단 구성...법령 정비

전남도교육청이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정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교육규제 정비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양창완 행정국장이 맡았다.

추진단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뿐만 아니라 교육관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비한다.

추진단은 먼저 각종 법령정비나 선다. 조례·규칙·훈령과 각종 고시·공고·예규·지침 등을 전수조사해 개선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를 등록·공개해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규제 개선 제안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나 팩스(061-260-0614), 전화(061-260-0639)로 할 수 있다.

/박정렬기자 jwpark@

## 광주·전남 건조주의보 속 주말 '봄비'

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휴일인 13일에는 광주·전남을 촉촉히 적혀줄 단비 소식이 있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광주와 여수, 곡성, 구례, 보성, 광양, 순천, 고흥, 완도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최고기온이 20도를 넘는 다소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1일에도 광주 최고기온이 24도, 나주는 25도를 기록하는 등 맑은 가운데 초여름을 연상케 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3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5~10mm가량의 다소 약한 비가 내리겠으며, 이날 광주 최고기온이 17도, 목포 16도로 떨어지는 등 비로 인해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광주경찰, 장애인·노숙자 명의 대포물건 판 일당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적장애인인 노숙자 명의 대포물건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사기 등) 김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12명의 명의로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 차량을 만들어 판매해 2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버스터미널, 요양원 등에서 장애인과 노숙자에게 접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주민등록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포물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도용한 개인 정보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 카드사, 은행 등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타인의 신분증만으로 휴대전화, 카드, 통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

## 기적의 [한글영어] 149,150회 공개강좌

# 〈한글영어〉는 3개월에 말하는 영어!

**장순화 원장**

미국대 사범대 역사교육학과 졸업  
한국관광공사 근무, 1994년 4월 창립자 임명  
27년간 100만명 이상 1000여명 학생에게 1000시간 수업을 제공  
1000여명 학생을 유학, 외국입학, 각종영어시험 지원  
미국무선, CBS TV가 47개 채널 1000여명 학생을 지원

**김종성 박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1994년 창립자 임명  
1000여명 학생을 유학, 외국입학, 각종영어시험 지원

한글영어는 국내에서, 비전공자로, 영어 한마디 못했던 엄마가 41세에 학교 풀었던 자녀를 위해서 개발,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어 세계적인 대학에 입학시켰고, 같은 방법으로 12년간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킨 탁월한 외국어학습법입니다. 그 노하우를 전격 공개합니다.

**무료공개강좌 5시간 참석 후, 혼자 할 수 있는 영어입니다.**

그렇게 돈 들여 영어공부하고도 아직 말을 못하십니까? 16년의 시간을 들이고도 아직 말을 못하십니까? 미국가면 거지도 하는 영어인데~ 왜 일까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으로만 공부했지 입으로 말을 안 해봤습니다. 발음에 자신이 없다고요? 연습처리가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한글영어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한문장, 한 문장, 긴 문장, 짧은 문장, 다 쉽게 됩니다. 먼저 말이 되면, 듣기-읽기-문법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역설적 방법이라고요? 아뇨, 이것이 언어학에 정통하신다면.

**한글영어 100여권의 교재중 꼭 필요한 교재를 소개합니다.**

생활영어에 최고로 알려져 전세계 75개국에 보급되고, 국내 EBS-TV (호아네 집)으로 수년간 방영된 애니메이션 교재 (카이유), 현 중, 고등 8종 교과서 단어를 분석분류해 (중등2600단어-학습장)(고등3000단어-학습장)을 완벽히 한글영어화해 토익과 토플을 위한 (이슈우화) (피터팬) (홀스트리안) 등 수준별 문학작품, 뉴스와 시사사를 위한 (오바마, 루터링-연설) 모든 영어책을 할 일게 해주는 (한글식 파닉스), 하버드대 브레이크아웃을 도입한 (신규약성규제) 등...

**〈한글영어〉와 똑같은 본문으로 〈한글중국어〉교재도 나왔습니다.**

이미 입에 붙은 영어문장을 그대로 중국발음화하니 너무 쉽게 말할, 〈생활중국어〉 (이슈우화) (비밀의화원) (카타리아저씨) (데니얼),

### 무료 공개강좌 및 지방설명회

▶ 강의일시 및 장소

제149차 4월 12일(토) (낮1~5:30) / 한글로영어 강당

제150차 4월 14일(월) (낮1~5:30) / 한글로영어 강당

▶ 오시는 길 :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15번출구 - 70m 직진 후 좌회전 (국일관빌딩 14층)

▶ 참석접수 : 1670-1905 (대표전화) ▶ 참가비 : 무료 (신착순 접수)

12년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저자 장순화 원장 직강

▶ (광주 설명회) 일시 : 4월 15일(화) 낮1~5시 장소 : 광주역 무등산실

▶ 한글로영어 지사점/교사 모집 ◀ 주부, 대학졸업예정자, 퇴직자, 구직자 돈 안들이고 고소득 보장! (교재가 완벽한 신생아기에, 학생지도가 너무 좋습니다)

전국통화 : 1670-1905 (한글영어)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20 국일관 14층